

광양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여건 인천·부산보다 불리하다

세계감면 만족 25% 불과...인지도도 낮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여건이 같은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부산·진해보다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 투자기업의 만족도가 경쟁상대인 인천보다 낮고 구역청 근무 공무원들의 외자유치 성과에 대한 인식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 투자기업 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에 대한 만족도(5점 만점) 역시 광양이 3.08로 인천의 3.50보다 낮았다. 광양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기업 가운데 세계감면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25%, 인천은 41.7%, 부산은 23.8%로 나타났다.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외자유치가 잘되고 있는나'고 묻은 결과 절대 다수인 82.5%인 99명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천 53%, 부산·진해 51.6%로 나타난 공무원들의 외자유치 부진 응답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3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72개 기업 가운데 45개의 외국투자기업은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나머지 27개는 아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푸둥이나 두바이,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보다 월등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인근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근무하는 공무원들

▲경제자유구역=일정한 범위를 정해 각종 행정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특별지역으로 2003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순천·여수·광양 3개시와 경남 하동지구 등 모두 90.38km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여수·광양 등 16.9km의 추가 지정이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의미를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는 광양이 절반에 가까운 49%나 됐지만 인천은 24%에 불과했다. 부산·진해는 74%로 가장 저조했다. 지역주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진해로 홍보비율은 95.7%로 나타났으며 광양은 두 번째인 93.3%로 조사됐다.
3개 구역에서 근무중인 33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보완할 정책으로는 55.2% (복수응답)가 '규제완화'를 꼽았고, '외자유치 지원'(33.6%), '정책의지 일관성'(27.9%) 등을 제시했다.
외자유치 측면에서는 외국 자본 투자 기업 경영환경 개선(36.8%), 행정 절차 간소화(25.8%), 각종 자금 지원(21.5%), 세금 감면(11.5%) 등의 순으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부산·진해는 55%로 조사됐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12,000 건각 3·1정신 드높였다



광주일보3·1절 전국마라톤 심재덕·배정임씨 풀코스 남녀 우승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가 열린 1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일대와 나주 남평에 이르는 영산강 주변은 일찍이 찾아온 포근한 날씨와 더불어 마라톤 열기로 가득했다.
1만2천여명의 출전 선수들은 새 봄을 여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축하하며 달리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대회는 분사 김진영사장의 개최 선언, 박광태 광주시장의 격려사에 이어 오전 9시 10분 막이 올랐다.
출발을 알리는 대포소리와 함께 풀코스 선수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레이스에 나섰다. 이어 하프, 10km, 5km 주자들이 10분 간격으로 출발하며 월드컵경기장 일원은 광주·전남은 물론, 서울 등 각지에서 출전한 마라토너들과 가족들이 내뿜는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대회 결과 풀코스 우승자는 남자부에서 경남 거제 출신의 심재덕(39)씨가, 여자부에선 경남 김해의 배정임(41)씨가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다.
역대 최다인 1만2천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레이스 구간별로 휴일을 맞은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잇따르는 등 마라토너들의 '축제의 한마당'이 됐다. /최재호기자 lion@

관련기사 6·9·20·22·23면
교통통제 협조 감사드립니다

광주일보사는 1일 일부 지역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대회의 성공을 위해 수고 해주신 광주시·전남도, 광주시체육회·전남도체육회, 광주·전남육상연맹 관계자, 전남경찰청·광주서부경찰서·남부경찰서·나주경찰서 등 경찰관과 의경,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광주 투기과열지구 해제될 듯

건교부 9월이전 검토...1년마다 정기 심의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광주시 등 상당수 지방광역도시가 오는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투기

과열지구의 해제 여부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의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광주시와 광주시의 등 지역 경제단체들은 "광주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

고 부도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극히 악화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그러나 건교부는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1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수도권을 제외한 광주시 등 상당수 지방 도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또 한나라당의 박승환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건교부장관이 6개월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건교부가 3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정기적으로도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 광역시의 해제 요청이 있어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우암역만 장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mbu.ac.kr
세빛을 밝히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www.jinam.ac.kr

뮤지컬 '에비타' 광주공연
3월 9일(금)~11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8

76%
피부 시간을 뛰어넘는
심경김
IOPE